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 - □□□



받는사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1 3 7 - 8 6 3

BIBLE A MONTH CLUB

매달 한 권의 성경을...

BIBLE A MONTH CLUB!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전 세계에는 정치, 종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성서 번역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블 어 먼쓰 클럽(Bible a Month Club)은
매월 정기적으로 성서헌금을 약정하여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내는
운동입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후원에 대한 문의 사항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2-2103-8833~5 팩스: 02-2103-889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홍보진흥본부 / www.bskorea.or.kr



2013년 여름 제59권 2호

성서한국

세르비아에 성경을 보냅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

성경 나눔을 통하여, **행복과 기쁨,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2013년 사순절 마가복음 필사 기념

'기념일 성경 나눔'이란?

특별하고 소중한 날을 기념하여,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성경을 나누고 후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은 이런 날 할 수 있어요!

결혼, 결혼기념일, 출산, 돌, 생일, 입학,
졸업, 취업, 승진, 은퇴, 창립기념일, 부활절,
주수 감사절 등 특별한 날에 나눔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에 참여하시면...

본인이나 가족, 친지, 동료 등의 기념일에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기부해 주시면,
10만원 이상의 후원을 해주시면 사진과 함께 나눔의 글이 담긴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를 액자에 담아 드립니다.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를 원하시는 경우 사진과 글을 보내주세요.

★ 기념일 성경 나눔 신청방법

기념일 성경 나눔은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연락부탁드립니다. (080-374-3061 / 02-2103-8833~5)
홈페이지 <http://www.bskorea.or.kr> | 이메일 biblef@bskorea.or.kr | 팩스 02-2103-8894

기념일 성경 나눔 신청서

성명 : _____ 연락처 : _____

주소 : _____

이메일 : _____

후원금액 : _____

후원계좌 : 수협은행 1010-0997-7440 / 신한은행 140-009-909678
국민은행 070-01-0340-570 / 우체국 011916-01-000076
(예금주 : 대한성서공회) *송금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기념일 성경 나눔 증서 신청 : ☐ 예 ☐ 아니오

(성경 나눔 증서를 신청하신 경우 아래 내역을 작성하여 주시면, 증서에 넣어 제작해 드립니다.)

나눔 증서에 넣기 원하는 성명 : _____ 기념일 : _____

나눔 증서에 남기고 싶은 말씀 : _____

C O N T E N T S

2 제119회 정기이사회

성서 사업 보고 · 권의현

4 모금소식

극심한 가난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세르비아인들에게
성경을 보냅니다! · 호재민

8 사람과 사람들

UBS 아프리카 지역 총무들 만나서...
에콰도르성서교회 이사장과 총무를 만나서...

12 2013년 해외 성서 기증 프로그램

14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⑥

바울 선교의 주요 전략 도시, 에베소 · 장홍길

18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의 랍과 목사님

20 KBS 소식

제119회 정기이사회가 열리다
UBS 아시아 지역 성서교회 총무들 회의
우간다성서교회 이사진 내한
필사를 기념하는 기념일 성경 나눔 프로그램

22 지구촌 소식

지금까지 없었던 말리의 위기 상황속 성서공회의 지원

24 성서전시실에 전시할 고서를 찾습니다!



성경을 기증받은 세르비아 소녀



성서한국

2013 · 여름
제59권 2호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팩스 : 2103-8894
· 회원문의 : 2103-8833-5 · 편집문의 : 2103-8811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2103-8791-2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3년 6월 30일
· 인쇄인 : 김현수 · 인쇄처 : 삼립인쇄(주) · 편집 : 스테디인컴페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찬성회원(후원, 가정, 평생회원) 회비 완납자 명단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서 사업 보고*



권의현 사장

2009년부터 시작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조직 및 기구 개편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그동안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지역 본부를 통해서 지원되던 재정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입니다. 이번 기구 개편은 변화하는 세계 성서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성서사업 기반이 약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지원에만 의존해 오던 개별 성서공회들은 사역이 상당히 위축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맞게 된 이들은 성서의 번역이나 반포 분야에서 지역 단위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재정 자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과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난 2월에 부르키나파소에서 개최된 서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들의 회의였습니다. 본 공회는 서아프리카의 불어권 10개국 성서공회 대표들과 미국 및 네덜란드성서공회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특별히 초대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본 공회의 성장과 자립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각 성서공회들이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본 공회가 이들의 사역을 이전보다 더 활발히 지원하기 위하여 성서 기증 프로그램을 비롯한 성서의 출판과 제작 및 보급의 전 과정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들의 짐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5월에 열린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본부 이사회에서는 에콰도르성서공회가 신청한 회원 가입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이미 보고 드렸던 대로 에콰도르는 성서공회가 폐쇄되고 성서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있었는데, 2009년 본 공회에서 26,771부(10만불 상당)의 스페인어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한 바 있고, 이 성경으로 성서 반포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새로 출범한 에콰도르성서공회가 정상적으로 성서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번 에 세계성서공회연합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서를 해외로 보급하기 위한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성서사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본 공회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는 성서공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

다. 세계 성서운동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온 본 공회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성서공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서사업의 인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서구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 성서공회들을 위해서 본 공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동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지역 성서공회들(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수단,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에리트레아, 콩고민주공화국)이 모여서 공동의 성서사업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이 회의에 초대를 받아 성서 출판과 보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분야에서 각 성서공회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인적, 재정적 지원과는 별도로, 금년에도 성서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서 기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토고를 비롯한 18개 나라, 남미의 쿠바를 비롯한 4개 나라, 그리고 아시아의 파키스탄을 비롯한 4개 나라, 유럽 중동 지역의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5개 나라에 성서를 제작 기증하면서, 운송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본 공회는 미국성서공회와 함께 협

력하여, 자신의 언어로 처음 번역된 소수민족들의 성경인 음반자어 성경(콩고민주공화국), 수르요요어와 아랍어 대조 신약(터키), 세나 신약(모잠비크)의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미얀마 5개 소수 민족의 성경 번역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 파오어 성경 번역은 본 공회 번역실에서 직접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쿠알심 신약은 지난해 번역 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본 공회의 지원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쿠알심 신약성경의 봉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바성서위원회에서는 쿠바 교회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성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협력하여 '쿠바를 위한 성경 1백만 부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본 공회에 성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쿠바에는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으며, 전적으로 세계 각국 성서공회들의 지원에 의존하여 성경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후원자께서 4만 불을 현금하여 주셔서 스페인어 성경 12,800부를 제작하여 1월 하순경에 쿠바로 발송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 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보내주신 헌금은 지난해보다 5천여 만 원이 증가한 8억 1천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19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세르비아인들에게 성경을 보냅니다!

호재민(홍보진흥본부 본부장)

▼ 세르비아성서공회로부터 기증받은 성경을 읽고 있는 세르비아 젊은이들



발칸반도 중앙부에는, 격렬한 내전과 인종청소의 아픔을 겪어온 '세르비아공화국'이 있다. 동쪽으로는 루마니아, 남동쪽으로는 불가리아, 북쪽으로는 헝가리, 서쪽으로는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남쪽으로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2012년 7월 기준으로 인구는 7,276,604명에 이르고, 세르비아어와 함께 헝가리어, 보스니아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다. 인종청소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학살하고 탄압하면서, 결국 1999년 코소보 사태로 민족 갈등이 폭발하였다.

국제 사회는 그동안의 내전과 인종차별로 세르비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내전 당시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코소보 등지에서 대량학살이 일어나고 잔인한 전쟁이 있었다. 세르비아의 국토는 오랜 내전으로 거의 폐허가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끝난 지금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세르비아는 국권을 빼앗긴 적도 있고,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불가리아 등 외세의 간섭을 받아서 제대로 된 자주 독립국가로 일어서기에 힘든 시간을 거쳤다.

실제로 세르비아의 거리에서는 폭격 맞은 건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세르비아의 수도인 '베오그라드'는 발칸의 요충지로 지금껏 40여 차례나 파괴되고 재건된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내전 당시 총탄에 맞은 건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는 그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이다.

세르비아성서공회의 공식 등록

세르비아성서공회의 성서사업은 세르비아의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받아 왔다. 세르비아성서공회는 1918년에 영국성서공회의 '사무소' 형태로 설립되었고, 1945년부터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성서사업을 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과 오랜 공산정권, 유고슬라비아의 붕괴, 코소보 사태 속에서 성서공회는 수십 년 동안 폐쇄 위협과 직원들에 대한 핍박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세르비아가 변화하면서, 세르비아성서공회는 법적으로 재정적으로 완전히 자율적인 기관이 되었다.

2009년 11월 25일은 새로 설립된 세르비아성서공회의 가장 기쁜 날로, 첫 이사회가 열린 날이다. 이때부터 세르비아성서공회는 세르비아 정부의 인가를 받아 주요 교단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성서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세르비아인들은 높은 실업률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버거운 삶을 살고 있지만,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유고슬라비아의 붕괴 이후 종교 활동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전 세대는 공산정권의 핍박으로 어떤 교회에도 출석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서, 교회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이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혹은 공산 정권의 통치 속에서도 남몰래 신앙을 유지했던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는 젊은이들도 있다.

젊은이들이 집에 들고 갈 수 있는 개인 소유의 성경을 갖게 되면, 교회 출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은 중요하고 또한 시급하다. 또한 젊은이들은 공산



세르비아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기증받은 세르비아 젊은이들
(좌측 베라 미틱 총무)

정권 하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기성세대들과 앞으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세르비아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르비아어 신약성경 보급 후

“신약성경을 받아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세르비아 남부에 있는 니즈(Nis)의 한 교회 지도자가 세르비아성서공회로부터 신약성경을 기증 받은 후 고백한 말이다. 그는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살 여유도 없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성서공회와 연결하여 신약성경을 교회에 보급하였다. 각 신약성경 속표지에 축복의 말씀과 성서공회의 선물이라는 것을 표기하였다. 그는 625명 성도들 중 65%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의 남성 성도와 1%의 여성 성도만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성서공회의 성서 보급으로 많은 세르비아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르비아성서공회 베라 미틱(Vera Mitic) 총무는 정기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다. 현재 많은 세르비아 교회들이 세르비아성서공회의 성서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미틱 총무는 다른 나라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세르비아에서는 제작할 수 없는 금 도련 성경이나 인덱스가 있는 성경을 교회에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르비아 성서사업의 미래는 밝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지도하는 젊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과의 만남으로, 미틱 총무는 이미 세르비아 남부 지역의 도시 니즈에서 어린이 사역 등 잠재력 있는 성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다음 세대에게 다가간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즈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 밀란이 말하였다. 밀란과 같은 교사들은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신앙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르비아의 어린이들의 인생을 바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다”라는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이다.

이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는 니즈 지역의 학교 도서관에 150부의 어린이성경을 반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에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전도지를 반포하는 것이다. 이 전도지로 인하여 일부 가족들은 처음으로 하나



어린이성경을 기증받은 교사 밀란과 학생들

님의 말씀을 접하게 될 것이다.

열 살인 네다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다. 네다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신앙을 고백하였고, 반 친구인 일리자도 “저는 믿음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네다와 일리자 같은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르비아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르비아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은,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들의 가족, 나라 그리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값진 일이 될 것이다.

세르비아성서공회의 미래 성서사업

지난 몇 년 동안 세르비아성서공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성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르비아 전역에 성경을 보급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세르비아성서공회에는 앞으로 진행해야 할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다.

세르비아성서공회는 세르비아인들의 공용어인 키릴어가 아닌, 라틴어로 된 세르비아 성경을 세르비아에서 살고 있는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난민들, 호주 등 다른 나라에 있는 세르비아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에 보급하고자 한다. 또한 어린이 성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새로운 세르비아 구약 번역을 출간할 예정이다. 세르비아어 첫 구약은 1868년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현재 세르비아 젊은이들이 이 번역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번역이 완료되면, 교회에서 널리 환영받고 성경의 메시지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세르비아성서공회는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세르비아 정부, 회사, 개인 모두가 마찬가지이다. 세르비아 7백만 명의 인구 중, 7분의 1이 하루에 45 디나르(한화 630원) 미만으로 살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은 성경을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세르비아성서공회는 다른 나라 성서공회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

본 공회는 올해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세르비아성서공회에 성경을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세르비아인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사역에 기도와 헌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원을 헌금하시면 2권의 성경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UBS 아프리카 지역 총무를 만나서...

지난 4월 4일, 본 공회를 방문한 UBS의 아프리카 지역 데이비드 하몬드(David Hammond) 총무를 만나, 현재 아프리카 지역 상황과 성서 보급 현황에 관해 들었다.

UBS 아프리카 지역 데이비드 하몬드 총무

Q1 총무님께서 언제부터 UBS에서 사역하기 시작하셨고, 그 시작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UBS에서 일한지 15년이 되었지만, 성서공회 운동을 시작한지는 27년이 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12년간 가나에서 총무로 성서공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는 토고에 있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 본부로 옮겨서 8년간 섬겼습니다.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로 옮겨서 전체 아프리카 지역 본부 총무로 7년 반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성서공회에서 사역하기 전에는 변호사로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성서공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에서 목회자나 기독교인은 힘겹게 살기 때문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성서공회 사역은 아내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성서공회 일을 하는 동안에 계속 일을 하였습니다.

Q2 언제부터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성서사업을 하기 시작하셨는지요? 또 대한성서공회와 성서사업

을 함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가나에 있을 때부터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가깝게 사역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20년 전 'UBS 세계이사회(Global Board)'에서 김호용 전 총무님과 함께 UBS 사역을 하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으로 옮긴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많은 성서를 출판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감동 받은 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서공회들에게 많은 성서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성서공회는 아프리카 대륙 성서공회들 중 성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성서를 보급합니다. 여러 언어로, 영어, 프랑스어, 부족어들로 성서를 제작하여 보급합니다. 대한성서공회의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Q3 현재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들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대한성서공회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UBS는 기금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프리카 성서 출판과 보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성서를 출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서공회가 거의 없습니다. 차드(Tchad) 같은 나라는 아프리카 내륙에 있어서 카메룬의 두알라 시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성서를 보급받는 데 7개월이나 8개월정도 걸립니다. 그렇다고 성서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서가 한 권도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무척 가난합니다. 시골에 살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아프리카는 성경을 운반할 수 있는 운송 시설이 부족합니다. 기차나 트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권이나 두 권의 성경을 구하기 위해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급할 수 있는 운송 시설이 절실합니다.

신생 성서공회인 남수단성서공회의 사무소에는 사무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고가 있습니다. 의자와 책상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5년간 전쟁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무척 가난합니다. 남수단에서는 마을과 마을을 걸으면서 성경을 보급합니다. 분명 효과적인 성서 보급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도전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지역 나라들은



남수단성서교회 사무소 앞에서 성서공회 관계자들과 함께
(왼쪽에서 4번째에 있는 하몬드 총무)

대부분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성서를 보급하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우간다, 가나, 말리, 세네갈 등의 기독교인 인구는 4% 정도에 불과하고, 많아야 7% 정도이며, 나이지리아는 1%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 성서공회들은 위협적인 상황에서 성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성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연약한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들을 위하여, 대한성서공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성서를 공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Q4 한국교회가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들을 위해 기도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먼저, 변화하는 UBS의 리더십을 위해, 더불어 각국 성서공회들이 자립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아프리카 나라들의 정치 상황이 호전되어 성서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교회에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에콰도르성서공회 이사장과 총무를 만나서...

지난 5월 22일, 에콰도르성서공회 이사장과 총무가 본 공회를 방문하였다. 이들은 본 공회가 2009년에 26,771부(10만 달러 상당)의 스페인어 성경을 기증한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이 지원으로 당시 재정 악화로 문을 닫았던 에콰도르성서공회가 다시금 성서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종자자금(seed money)을 마련할 수 있었다. 에콰도르성서공회의 이사장과 총무는 본 공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에콰도르성서공회 예실 카비알 이사장, “성경은 인생을 바꿉니다.”

처음 대한성서공회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한국이 이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무려 25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성서공회는 3년 전에 에콰도르성서공회가 다시 성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증해준 고마운 성서공회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도 좋은 사역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에콰도르성서공회가 조직을 정비하고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콰도르성서공회의 직원들은 이러한 축복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대한성서공회의 도움으로 끼추아어로 번역된 성경과 에콰도르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본 공회를 위해 기도하는 에콰도르성서공회 예실 카비알 이사장

중에서도 파비안 코르테즈 목사님은 회심한 사람들에게 성서를 전해주고, 각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전세계로 성서를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의 사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는 사역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대신해 대한성서공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에콰도르성서공회 프레디 게레로 총무, “대한성서공회가 뿌린 씨앗이 에콰도르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한 사역은 에콰도르성서공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다른 나라에 성서를 보내는 일은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에콰도르성서공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에콰도르성서공회는 성서공회를 성장시키고 다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현재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하는 성서공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언어로 높은 산악 지역에서 해안 지역까지, 계곡을 지나 정글 지역으로, 큰 도시들과 갈라파고스섬까지 모든 에콰도르 지역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와 에콰도르성서공회의 헌신된 섬김으로 에콰도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나아갈 시기입니다. 그동안 대한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은 것을 넘어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도울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쿠바’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쿠바 사람들에게 성서를 보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에콰도르성서공회는 성경과 교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과 교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갖



본 공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에콰도르성서공회 (좌측 프레디 게레로 총무, 우측 권익현 사장)

고 있어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저희 미션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무엇보다 많은 분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에콰도르 인구의 14%가 개신교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한성서공회가 뿌린 씨앗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점차로 확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에콰도르 인구 1500만 명 중 800만 명의 사람들이 성경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성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성서가 생수와 같이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서공회를 위해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 해외 성서 기증 프로그램

International Scriptures Donation Program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콩고 어린이들▶

- | | | | |
|-----------------|------------------|-------------------|------------------|
| 1 터키: 수르요오어 외 | 10 에티오피아: 아하락어 외 | 19 수단: 아랍어 외 | 28 방글라데시: 벵골어 |
| 2 콩고민주공화국: 음반지어 | 11 콩고민주공화국: 프랑스어 | 20 남수단: 아랍어 외 | 29 파키스탄: 우르두어 |
| 3 모잠비크: 세나어 | 12 르완다: 르완다어 외 | 2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상고어 | 30 발칸반도: 알바니아어 외 |
| 4 도미니카공화국: 아이티어 | 13 우간다: 루간다어 외 | 22 차드: 프랑스어, 아랍어 | 31 레바논: 아랍어 |
| 5 페루: 스페인어 | 14 부룬디: 룬다어 외 | 23 라이베리아: 영어 | 32 쿠웨이트: 아하락어 |
| 6 파테말라: 스페인어 | 15 앙골라: 포르투갈어 | 24 시에라리온: 영어 | 33 바레인: 아하락어 |
| 7 쿠바: 스페인어 | 16 부르키나파소: 프랑스어 | 25 말라: 프랑스어 | 34 아랍에미리트: 아하락어 |
| 8 키메룬: 영어 | 17 토고: 프랑스어 | 26 미얀마: 스귀키렌어 외 | 35 미얀마: 쿠알살어 |
| 9 가나: 트와인잔테어 외 | 18 에리트레아: 아랍어 외 | 27 캄보디아: 크메르어 외 | |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3개국 (US\$ 75,650) ①~③

이번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을 기증합니다.

성서 기증 프로젝트 31개국 (US\$ 682,993.9) ④~③④

계속되는 가난, 전쟁, 정치적·종교적 박해로, 성경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기증합니다.

미얀마 4개 소수 민족 번역 프로젝트 지원 (US\$ 30,000) ③⑤

2011년 한글 성경 완역 및 출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된 미얀마 소수 민족을 위한 성경 번역을 지원합니다.

여러분께서 10,000원을 한글하시면, 말씀에 굶주리고 있는 이웃들에게 성경 2권을 보낼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바울 선교의 주요 전략 도시, 에베소

장흥길(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현재 터키에서 발굴된 신약 성지 중에서 에베소만큼 중요한 도시는 없다. 에베소가 로마제국에 속한 아시아 주(州)의 수도일 뿐 아니라 주후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과 요한의 성지이자 초기 교회의 성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베소는 바울과 요한이 시대를 달리하여 활동한 지역으로, 두 사도의 사상이 교류하여 공통점을 지니게 된 곳이다. 바울이 주후 50년대에 여기서 활동하였던 반면, 요한은 1세기 말에 사역하였다. 또 에베소는 주후 431년 마리아 교회에서 열렸던 세 번째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였다는 '테오토코스(theotokos)' 교리를 결정했던 교회사 유적지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에베소를 사도 바울이 활동한 선교지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 대한 일반적 개관을 살펴보고, 그 성서적,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자.



에베소 유적지 전경



에베소의 극장



기둥 하나만 남아 있는 아데미 신전터

현재 '셀축'으로 불리는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항구도시였다. 주전 1세기 지리학자 스트라보에 의하면, 이는 당시 아시아 주에서 가장 큰 상업 중심 도시였다. 또 아시아 주 총독이 머무르며 다스렸던 행정도시였으며, 대형 아데미 신전이 있던 종교도시였다. 특히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했던 50년대에 이곳에는 그리스-로마 건축 양식의 기념 건축물과 공공건물,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다. 에게 해와 주변의 강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 아래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크게 발전하였다. 지형 조건뿐 아니라 로마의 도로 체계는 에베소를 아나톨리아 대로 상의 교통요지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에베소는 아시아 주의 최대 중심도시가 되었다. 에베소에 도시가 들어선 때는 주전 1000년경 그리스가 이오니아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던 시대였다. 그 후, 이 도시는 루디아, 페르시아, 마케도냐 등의 통치를 받았으며,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아시아 주의 수도가 되면서 급속하게 번영하였

다. 황제의 적극적인 도시화 정책으로 발전한 에베소의 모습은 도시의 건축물에 잘 나타나 있다. 현재 에베소를 찾는 방문객들은 1863년 이래 지금까지 발굴된 로마 시대의 행정, 수리, 문화공연, 종교, 주거 시설을 볼 수 있다. 행정시설로는, 의사당인 불레테리온과 공회당인 바실리카, 시청(prytaneion) 등의 주변에 있는 행정 광장(agora)과 많은 상점에 있는 상업 광장이 있으며, 수리시설로는 폴리오 분수와 바리우스 목욕관과 항구 목욕관, 트라얀 샘, 기념 분수대 및 수로 등이 있고, 문화공연시설로는 칼스스 도서관,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 체육관 등을 들 수 있다. 또 종교시설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을 비롯하여 도미티아누스와 하드리아누스 신전 그리고 마리아 교회와 요한 교회 등이 있으며, 주거시설로는 무엇보다도 3층의 계단식 구조로 1세기에 세워진 두 개의 공동주택(insula)을 들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와 관련된 본문은 바울의 선교 여행 동행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에베소 아고라 내 아테미 신상실



에베소 박물관 내부 유적

(18:18-22; 19-20장; 21:29)과 바울 자신이 기록한 고린도전서(15:32; 16:8), 에베소서, 디모테서(딤후 1:3; 딤후 1:18; 4:12)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 바울과 관련된 에베소의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이 끝날 무렵(52년), 고린도의 외항 겐그레아에서 바닷길로 에베소에 이르러, 자신과 함께 1년 반 동안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 머무르게 하고,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다가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요구를 거절하고 이곳을 떠났다(행 18:18-21). 이어서 그는 세 번째 선교여행(52-56년 초)을 하면서 이곳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한 뒤,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 동안 가르치며(행 19:1-10) 대략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행 20:31).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바울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한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임을 알게 하고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행 19:1-7).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을 찾아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 이때 어떤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비방하므로, 그는 이들을 떠나 따로 제자들을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다(행 19:8-10). 또 바울은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이적도 행하였는데, 심지어 자신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가는 일도 일어났다(행 19:11-12). 한번은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시험하여 악귀 들린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귀를 하다가 악귀 들린 자에게 당하였는데, 이 일 후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은 오만의 가치가 있는 마술책을 모아 불사르는 일도 일어났다(행 19:13-20). 얼마 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보고 로마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행을 결심하였다(행 19:21-22). 그 무렵 아테미 신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장색이 바울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에베소 사람을 선동하여 극장에 모아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놓

고 소요를 일으켰다(행 19:23-34). 그러나 이 소동은 두 시간 후 서기관의 경고로 해산되었다(행 19:35-41).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방으로 가서 석 달을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러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교회를 권면하는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행 20:16-38). 이때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동행했던 이방인 기독교인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었다(행 21:29).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할 때 맹수와 싸우는 위험을 겪기도 하였는데(고전 15:22), 아마도 이는 자신이 사형선고로 여길 정도로 큰 환난이었다(고후 1:8-9). 또 그는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였다.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의 세 번째 선교여행 말에 헬라에서 아시아까지 그와 동행했던 동역자였다(딤후 4:12).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기 전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믿음의 아들 디모테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하기도 하였다(딤후 1: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할 당시 이 도시는 로마의 속주 아시아의 수도로 정치와 행정, 경제와 교통뿐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다. 특히, 전통적인 대모(大母)의 신으로 여겨진 풍요의 여신 아테미를 도시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에베소에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 전파의 접촉점을 삼아, 이곳에 보편화되어 있던 우상숭배 대신 진리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전하였다. 그는 에베소를 선교 활동의 중심지로 삼

아 이곳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당시 교통 상황, 대도시 입지, 종교 상황 등을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선교하였다. 게다가, 그는 이 도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디모테 등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바울의 주요 선교지인 에베소 유적을 방문하면, 열방의 선교사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을 밟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바울 당시 에베소의 모습은, 소규모이지만 소장물의 가치가 결코 적지 않은 에베소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베소, 이는 터키에 있는 최고의 신약 성지임에 틀림없다. 🌐



에베소 박물관에 전시된 아테미 신상

말씀의 밥집 목사님

한국 선교 초기 때 선교사들은 한국 기독교를 '성경 기독교(Bible Christianity)'라고 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Bible-lover)' 혹은 '성경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Bible-loving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성서한국>에서는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을 소개합니다.



김범곤 목사

지난 4월 23일, 20년이 넘도록 길거리의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김범곤 목사님을 만났다. 김범곤 목사님은 각 언론에서 '서울역 노숙자들의 아버지'라 불린다. 최근 추위와 배고픔으로 떨고 있는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전달하는 김 목사님의 모습이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한성서공회를 찾으신 김 목사님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으로, 인터뷰 내내 호탕하게 웃으셨다.

전 '사랑의 등대' 대표이자 '예수사랑선교회'에서 사역 중이신 김범곤 목사님은 매년 한결 같이 2만 명의 무료급식 봉사단들과 함께 서울

역 등 5곳에서 무료급식을 하신다. 많을 땐 노숙자들이 8,000명까지 오기도 한다. 최근 목사님은 자원봉사단체에서 더 나아가 사단법인 '참 좋은 친구들'을 설립하였다. 굶주림 없는 세상을 위해 무료급식, 숙소제공과 더불어 노숙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취업알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김범곤 목사님은 처음 무료급식 활동을 했을 때부터 식권을 나눠준 후 약 30분간 설교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단순히 밥만 제공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을 유독 강조하셨다. 김 목사님은 한 끼의 식사에서 더 나아가 노숙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양주에 훈련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때 무료급식을 이용했던 노숙자들이 현재 봉사자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시는 김범곤 목사님의 얼굴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김 목사님은 국내활동 뿐만 아니라 해외 재난



파키스탄 지진 난민캠프에서 김범곤 목사님과 어린이들

긴급구조 활동에도 열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목사님은 파키스탄 지진 난민캠프에서 매일 2시간의 수면시간을 유지하면서 대지진과 추위에 떨고 있던 파키스탄 난민들에게 전기장판을 구매 주기 위해 몸을 사리지 않았다. 그런 김 목사님의 모습은 군 고위관계자들을 감동케 했다고 한다. 다 떨어지가는 고물 트럭 위에 설치된 밥 공장 기계는 난민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었다. 이렇듯 김범곤 목사님의 활약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빛이 난다.

김범곤 목사님은 지난 사역들을 이야기하시며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던 당시를 떠올리셨다. "어린 시절, 열악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도박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속상하게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지금의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을 돕는다면 정작 내 자식들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노숙자 합숙소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아들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라며 지금의 사역이 있기까지 가족들의 도움이 컸음을 말씀하시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목사님은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의 일에서 나는 시작만 했을 뿐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번에 사단법인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음을 말씀하시며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전도지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돈이 없어 전도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미자립 교회에 전도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1년에 몇십만 부씩 이용했습니다."라고 말하며 대한성서공회에 감사를 표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30년 동안 임해온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는데 단 한 번도 글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SNS를 배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SNS에 설교를 영어로 번역해서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셨다.

김범곤 목사님은 육신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영적인 배고픔까지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봉사에 임한다. 김 목사님은 '내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역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사람들에게 따뜻한 시래깃국이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다. ☺

제119회 정기이사회가 열린다

본 공회 제119회 정기이사회가 2013년 5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 이어,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신 이사 중 교단대표로 박만희 사관(구세군대한본영), 박준순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가 소개되고, 찬성회원 대표로 김현배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가, 감사로는 문석형 장로가 소개되었다.



제119회 본 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이어서 권익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김동권 목사, 부이사장에 정하봉 목사, 서기에 이정익 목사, 회계에 손인웅 목사, 실행위원에 김순권 목사, 김현배 목사, 박만희 사관, 박준순 목사, 엄현섭 목사, 이선균 목사, 이용호 목사가 선임되었다. ㉠

UBS 아시아 지역 성서공회 총무들 회의



아시아 지역 성서공회 대표 회의 참석자들

2013년 4월 2일, 아시아 지역 성서공회 대표들의 회의가 본 공회 로스기념관에서 이틀간 열렸다. 이 회의에는 본 공회 권익현 사장을 비롯하여 아시아 지역의 네팔,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캄보디아, 필리핀, 파키스탄 성서공회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각국 성서공회 대표들은 대륙 중심의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미주 그리고 유럽-중동 지역 단위의 사역 조직이 글로벌 사역 팀으로 개편된 상황 가운데서도 아시아에서의 성서사업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성서공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무엇보다 아시아 지역에는 전세계 인구의 50%가 있으며 이 지역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성서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아시아 성서출판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성서 제작 센터로 섬기고 있는 본 공회가 성서 제작 분야를 맡아서 이끌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

우간다성서공회 이사진 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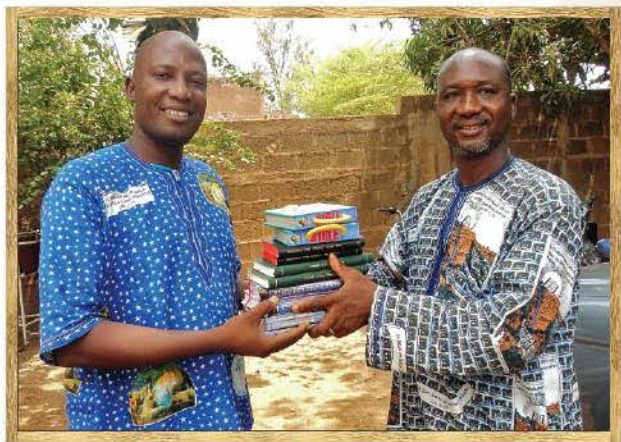
우간다성서공회 이사진과 총무 일행이 지난 4월 5일부터 10일까지 본 공회를 방문하였다. 우간다 교계 지도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은 본 공회 권익현 사장과 만나 그 동안 성서 기증과 제작을 통하여 우간다성서공회의 사역을 지원한 본 공회에 감사를 표하며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내한 기간 동안 본 공회 제본소인 바이블코리아 및 반포센터, 로스기념관 및 성서학도서관을 방문하며 본 공회의 다양한 사역을 돌아보았다. 우간다성서공회 방문단은 본 공회가 우간다를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 성서공회들의 성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본 공회의 성장 및 자립 경험을 배우고 양국 성서공회 간 협력을 통하여 우간다에서의 성서 사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

필사를 기념하는 '기념일 성경 나눔 프로그램'

지난 3월 25일, 홀트일산복지타운에 있는 홀트교회(김주현 목사)에서 2명이 본 공회 '기념일 성경 나눔 프로그램'에 신청을 시작하였고, 그 후 꾸준히 홀트교회 성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홀트교회는 사순절을 맞아 시설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 256명의 전인구원과 심리 재활을 위해 마가복음 필사를 계획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일 성경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6월 중순 현재까지 총 28명이 마가복음 필사를 마치고 '기념일 성경 나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홀트교회 김주현 목사는 성경 필사라는 거룩한 일을 하며 성경을 애타게 기다리는 지구촌 이웃에게 성경을 보내는 일에 후원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한다.

인생에서 소중하고 특별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웃들을 위해 성경을 보내는 이 사역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33~5) ㉠





성경을 전달하고 있는 말리성서공회 총무와 안드레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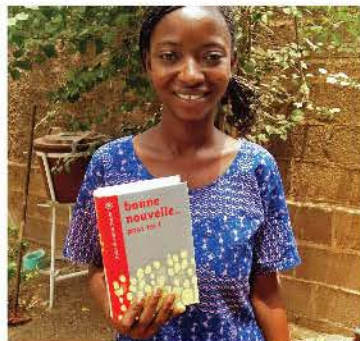
지금까지 없었던 말리의 위기 상황 속 성서공회의 지원

말리성서공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재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 가지는 기근으로 먹거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남쪽 지역의 교회, 그리고 전쟁과 이슬람 무장 세력을 피해 도망쳐 나온 기독교인들에게 쌀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 온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리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구호식량과 성경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우리 북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증가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남쪽으로 피난 온 한 젊은 기독교 여성이 말했다. 그 여성은 북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말리성서공회에서 제공한 불어 성경을 전달받았다.

바마코 지역의 위기극복 위원장인 안드레 목사는 말리성서공회의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말리성서공회의 지원으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매주 두 가정 이상이 안드레 목사를 찾아오고 있으며, 피난민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들을 돌볼 재정은 한계가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현재 바마코에 있는 피난소에만 북쪽에서 피난 온 약 500여 명의 기독교 피난민들이 생활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친



남쪽으로 피난 온 뒤 성경을 받은 젊은 여성



기독교인이 나눠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무슬림 소녀

척들과 생활하고 있다. 북쪽에서 내려온 기독교 피난민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과 본인들의 가족을 위한 충분한 음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남쪽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을 배포하는 노력은 바마코를 비롯한 모든 마을에 필요하다.

바마코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말리성서공회 총무 자크 템벨레는 14살 무슬림 소녀 로진을 만났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의 일부를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눠준 옥수수과 수수를 으갠 때마다, 우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것에 매우 기쁩니다.”라고 로진이 말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이전에 없던 그런 위기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기근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가 분열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73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 80%가 기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내전으로 인하여 부모와 함께 처지에 피난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바마코에서 400km 떨어진 지역인 쿠티알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녹 목사가 설명하였다.

이어서 에녹 목사는 말리성서공회 직원들이 멀리까지 쌀자루와 성경을 가지고 본인의 마을에 찾아와준 것에 대해 매우 감동했다고 전했다. “말리성서공회의 도움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리성서공회의 실질적인 도움과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난 온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에녹 목사▶

본 공회는 말리성서공회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프랑스어 성경 6,600부를 기증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다립니다.

(문의 : 080-374-3061(수신자 부담) / 02)2103-8833~5)

성서전시실에 전시할 고서를 찾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성경을 본 공회 성서전시실에 전시하시면,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60개 단체, 약 1300여명이 성서전시실을 다녀갑니다.

본 공회 전시실은 작은 성서박물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전시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의 수백 개 언어로 된 성경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서, 그리스어 성서, 또 주요 번역본인 칠십인역, 라틴어역, 영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등 중요 번역본들이 성서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된 책 중에는 제임스왕 역본(King James Version)이 있습니다. 책 안내 동판에는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오랫동안 읽힌, 제임스왕 후원으로 번역된 영어 성서'라고 되어 있고, '안봉환 소장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1995년 대한성서공회 백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성서전시실을 개관할 때, 당시 미국에 계셨던 안봉환 선생님이 제 공해 주신 것입니다. 안봉환 선생님은 유럽 지역을 다니실 때 이 역본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성서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안봉환 소장본'인 제임스왕 역본

고서를 소장하고 계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문의 : ☎ 02-2103-8820). 🌐

○ Bible a Month Club 회원 신청서 ○

매달 한 권의 성경을...

성명	(남, 여)	교회명	교회직분
집전화		휴대전화	추천인
주소			
이메일주소			
약정금액	☐ 매월 100,000원(성경 20권) ☐ 매월 50,000원(성경 10권) ☐ 매월 20,000원(성경 4권) ☐ 매월 10,000원(성경 2권) ☐ 매월 5,000원(성경 1권) ☐ 매월 원(성경 권)		
은행명	은행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예금주)		
본인은 약정한 후원금이 매월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위의 개인정보를 대한성서공회에서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반드시 회색영역(3면)에 붙칠하여 반으로 접착 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는곳

○ Bible a Month Club 주요 프로그램 ○



북한 동포 성서 프로그램

예배와 선교가 자유롭지 못한 북한 동포들에게, 성경 보급의 기회가 열릴 때를 기도하며 100만 명에게 보낼 성경을 준비합니다.



중국 동포 성서 프로그램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 중국기독교협회와 협력하여 1987년 세운 중국 남경의 애덕인쇄소에서 한글 성경을 제작하여 중국의 우리 동포들에게 보급합니다.



해외 성서 프로그램

가난과 질병, 전쟁과 소외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합니다.



쿠바 성서 지원 프로그램

쿠바 교회는 지난 10년 동안 3배가량 성장하여, 현재 쿠바에 약 100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낡고 헤어진 성경이라도 가지고 있는 성도는 25%에 불과합니다. 쿠바성서위원회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쿠바 교회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약 100만 부의 성경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성경을 제작하여 기증합니다.